

‘臨河九曲’의 발견과 그 江湖歌道 연구

申斗煥*

目 次

1. 문제의 제기
2. 임하구곡의 형성배경
3. 임하구곡의 경관고증과 강호가도
4. 결론

1. 문제의 제기

16세기에 이르러 퇴계와 율곡을 거치면서 조선 성리학은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다. 문풍은 이미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문학의 향유방식도 성리학적 문학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6세기 조선 시대 사화와 당파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몰입하여 시가를 지었던 사림과 문학의 흐름 속에 강호에 묻혀 살면서 성리학적 관념을 노래한 ‘江湖歌道’가 있었다. 강호가도는 조운제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념이 정립되었다.

16세기에 송순의 「면양정가」, 농암의 「어부사」, 퇴계의 「도산잡영」 및 「도산십이곡」 등이 출현하면서 조선의 문풍을 강호가도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특히 주희의 「무이도가」에서 비롯되는 구곡시가가 싹트기 시작하여 성행하면서 퇴계의 「도산구곡가」, 율곡의 「고산구곡가」 등이 구곡에 대한 문학 담론이 강호가도를 선도하고 있었다.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조선의 16세기는 성리학적 문학관이 팽배해 가면서 강호가도의 자연미를 발견해 가던 시대였다. 이 시기에 청계 김진에 의해 개척되었고 그의 아들 약봉 김극일에 의해 임하의 반변천을 중심으로 임하구곡의 전모를 갖추고 강호가도를 구가하였던 사실이 발견되었다.

약봉이 퇴계를 모시고 뱃놀이를 하였던 임하구곡은 지금까지 강호에 묻혀 있었으며 그 존재도 모르는 채 일부가 임하담에 수몰되고 말았다.

2012년 경상북도에서 구곡시가를 정리한 자료에는 임하구곡에 대한 명칭은 있지만 언제 누가 어디에서 운영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것은 알려지지 않아서 미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¹⁾ 이 논문은 임하구곡의 실체를 규명하여 임하구곡의 위상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퇴계의 고제자인 약봉 김극일의 시편에서 임하구곡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약봉과 함께 임하구곡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지은 퇴계의 시를 퇴계의 문집 속에서 발견하면서 약봉이 임하구곡을 경영한 사실을 고증할 수 있었다. 또 퇴계의 시에 대해 고증을 한 유도원의 글에서 임하구곡에 대한 지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義城金氏 천전파의 문집인 『聯芳世稿』는 아버지 靑溪公 金璣의 『靑溪文集』과 그의 아들인 金克一의 『藥峯文集』, 金守一의 『龜峯逸稿』, 金明一의 『雲巖逸稿』, 金誠一의 『鶴峯文集補遺』, 金復一의 『南嶽逸稿』로 합편한 문집이다. 이 자료에는 ‘임하구곡’을 중심으로 창작된 시가들이 상당량 수록되어 있었다.

『聯芳世稿』에 실려 있는 약봉 김극일의 시는 병란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었고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것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 500여수 정도 남아서 전한다. 그 규모로 볼 때 약봉은 훨씬 더 많은 시를 창작하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다.

1) 경상북도(2012). 경북의 43개 구곡자료 도표 참조.

그가 남긴 시편을 일람해본 결과 그의 작품은 임하의 경관을 중심으로 읊은 것이 많았으며 격조가 높고 성리학적 문학과 신선한 구상이 넘치는 산수시들이 많아서 16세기 강호가도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필자는 이 자료에서 약봉 김극일이 朱熹의 『雲谷二十六詠』을 의망해서 지은 『臨河二十六詠』을 발견하였으며 이 작품은 퇴계의 『陶山雜詠』과 비교될 수 있는 16세기 강호가도 연구의 중요한 작품으로 그 위상을 밝혔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임하구곡’의 존재에 대해 간접적으로 시사해 놓았다.²⁾

이번 연구로 ‘임하구곡’에 대한 운영의 주체와 구체적인 지명, ‘임하구곡’을 중심으로 전개된 강호가도의 시가에 대한 창작활동의 정황을 포착하여 고증해 냄으로써 우리나라 구곡시가의 연구에 일조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 이 연구는 16세기 성리학적 문학과 강호가도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고 조선의 사립과문학의 미의식을 연구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임하구곡’의 전모를 고구하여 ‘임하구곡’이 16세기 성리학자들의 대표적인 산수시가인 구곡문화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사실까지 고증하여 학계에 소개시키고자 한다.

2. 임하구곡의 형성배경

임하구곡은 의성김씨의 세거지인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반변천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임하구곡이 형성되는 반변천은 일월산 북쪽 계곡에서

2) 신두환(2014).

발원해 아름다운 산수와 조화를 이루며 임하면 일대를 지나면서 임하구곡을 이룬다. 이 중심에 위치한 천전은 다양한 경관을 이루며 선비들의 주거지로서 각광을 받아왔다. 이곳은 처음에는 해주 오씨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선 후기 이증환은 『택리지』에서 이곳을 조선의 길지라고 주장해 왔다.

이곳에 처음 정착한 의성김씨 입향조는 金萬謹이다. 의성김씨 안동 입향조 金居斗는 奉翊大夫 工曹典書를 지냈다. 처음에 풍산에 살았으며 그의 현손 金萬謹에 이르기 까지 모두 鉅卿 達官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다. 대대로 벼슬이 끊어지지 않았으며 그의 현손 金萬謹이 정유년(1477, 성종 8)에 진사시에 급제하였고, 이곳에 사는 海州吳氏에게 장가들어 成化 기해년(1479, 성종 10) 2월 2일에 福州 臨河縣 川前里에 처음 정착하였으며 그의 아들 秉節校尉 諱 金禮範에 이르러 비로소 은둔하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金禮範은 강변의 아름다운 경치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한송정을 지었다. 이때부터 임하의 아름다운 경치를 주목하였던 것 같다. 그의 아들이 성균진사 靑溪 金璣(1500~1580)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文才가 뛰어났으며 16세에 고모부 權幹에게 학문을 배웠다. 기묘명현이었던 閔世卿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서 23세에 아들 김극일(1522~1585)을 낳았다. 청계 김진은 그 이후 민세경의 아우인 민세정에게 학문을 하여 25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성균관에 들어갔다. 그는 성균관에 들어가서 하서 김인후 등 명현들과 교류하였다. 청계 김진은 세상이 혼탁한 것을 감지하고 고향 임하로 내려와 산수를 즐기면서 학문에 몰두한 것 같다. 이때부터 강호의 정취를 사랑하며 산수지락을 추구한 것 같다.

그는 임하현의 傅巖에 집을 지은 다음 후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써 일을 삼았다. 서당 한 채를 짓고는 집안의 자제들과 향리의 어린 선비들을 그 안에 모아 놓고 과거의 과목을 정하고 공부하는 것을 감독하였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일러 주고 잘 이끌어 주어 가르치는 방도를 다하였는데 수

십 년 동안이나 이를 폐하지 않았다. 이에 학생들이 점차 많아져 글을 읽는 소리가 온 경내에 울려 퍼졌다. 공의 다섯 아들 가운데 세 사람이 大科에 입격하고 두 사람이 성균관에 올라갔는데 이는 모두 공이 건장한 나이에 있었던 일로, 공의 영광이 되었다. 歲時에 고향에 올 적에는 韉笏이 상 위에 가득하였으므로 보는 자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흠모하고 감탄하였다. 처음에 공이 태어났을 적에 進士公이 공을 몹시 사랑하여 文會라고 小字를 지어 주면서 말하기를 “이 손자가 반드시 우리 집안을 창성케 할 것이다.”라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과연 증명되었다.³⁾ 임하는 점점 의성 김씨가 점유하게 되었다.

『武夷權歌』 10수는 武夷精舍의 완성을 기념하여 주희가 지은 것이다. 중국 동남쪽 복건성 북쪽에 위치한 무이산은 예전부터 최고의 명승지로 손꼽히는데 36개의 봉우리와 99개의 암석, 2개의 병풍절벽과 8개의 고개, 계곡도 많아 4개의 계곡과 9개의 여울, 5개의 웅덩이, 11개의 골짜기, 13개의 샘이 있다고 한다.

조선 문학사에 있어서 구곡에 대한 시가문학은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구곡문화는 언제부터 출현 했을까? 김문기 교수에 의하면 개성에서 출토된 고려 말 도자기에서 처음 나타난다고 하고 구곡원림의 경영과 구곡시가의 창작은 기록상 逍遙堂 朴河淡(1479~1560)의 雲門九曲과 『雲門九曲歌』가 최초라고 하면서 도산구곡과 비슷한 시기라고 하였다. 김문기 교수가 발간한 『경북의 구곡』에도 임하구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⁴⁾ 약봉은 박하담과 교유한 적이 있었다.⁵⁾ 그 중에서 퇴계가 도산을 무대로 주희의 『무이도가』를 차운하여 지은 『도산구곡』과 주세붕과

3) 鄭經世, 『우복집』 제18권, 「贈資憲大夫吏曹判書金公墓碣銘 并序」.

4) 김문기·강정서(2008).

5) 김극일은 「立巖」을 읊은 시 밑에다가 삼죽당 김대유와 소요당 박하담이 놀던 곳이라고 기록했다.

퇴계가 명명한 「죽계구곡」이 구곡문화를 창도하였고 그 다음이 율곡이 해주 석담에 은거하여 읊은 「고산구곡」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임하구곡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16세기 구곡시가의 출현에 대한 문학사적인 상상력이 새롭게 의문을 발동시킨다.

구곡은 시기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구곡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자연미의 발견은 달라질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뱃놀이가 가능한 공간이 있었는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구곡의 경관도 중요하지만 강호의 자연미가 중요한 연구 포인트이다. 구곡시가는 16세기에 조선에 유행되어 조선 말기까지 산수문학에서 성대하게 유행하였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구곡만도 약 200여개에 육박하고 있다. 18세기 서울 우이동 계곡을 무대로 「우이구곡」을 지었던 이계 홍양호는 구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대저 구라는 숫자는 양의 성대한 것이고 수의 완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 건괘의 책에 구를 썼고 홍범에 구주가 있고 우공에 구주가 있는 것이다. 골짜기에 구곡이 있게 된 것도 또한 자연의 수이다. 주자가 무이산의 그윽함을 드러내 밝힌 뒤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난 곳을 정함에 대부분 구로하였는데 오직 영남의 도산과 해주의 석담만이 드러났으니 어찌 지세의 아름다움에만 달려있는 것인가? 아마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일 것이다.⁶⁾

이 언급을 토대로 보면 주자의 무이구곡에 대한 구라는 숫자의 성리학적인 연원과 우리 조선의 구곡가의 시원이 퇴계 이황이 도산을 무대로 모색한 「도산구곡」과 율곡이 해주 석담을 중심으로 전개한 「고산구곡」으로부

6) 홍양호, 『이계집』 권13, 「우이동구곡기」. “夫九字 陽之盛 數之極 故乾之策用九 而範有九疇 貢有九州 洞之有九曲 亦自然之數也 自夫朱夫子 發武夷之奧 東人之占名區者 率多以九數焉 惟嶺之陶山 海之石潭 尤著焉 豈有地之勝歟 殆由人以顯也”

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계는 우리나라 구곡에 대한 지세들을 고구하고 나서 뛰어난 지세를 주목했다. 그는 “구곡의 승경을 모아서 아래위로 거슬러 오르면 영남의 도산과 해주의 석담과 우열을 다툼만하다.”⁷⁾고 하였다. 구곡에 대해 영남의 지세가 일찍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율곡의 『고산구곡』은 율곡의 『석담구곡』보다도 훨씬 앞선 것이었다.

입하구곡의 발견은 16세기 강호가도의 새로운 발견이며 구곡문화의 선구적 역할을 해온 도산구곡과도 쌍벽을 이룰만한 것으로 우리 문학사를 새롭게 확장하는 담론 형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자의 『무이도가』를 두고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무이도가화운』⁸⁾에서 별이는 『무이도가』에 대한 비평은 16세기 구곡문화를 선도하였고 『무이도가화운』은 무이도가 연구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포저 조익이 退溪와 高峯의 武夷九曲의 시를 논한 글을 읽고 『무이도가』를 입도차제로 이해하면서 『무이도가』가 입도차제인가 인물기흥인가에 대한 비평을 한층 더 깊게 이끌었다.⁹⁾

연산군 이후 헤이해지는 성리학적 도덕관은 다시 재무장되면서 김종직을 비롯한 한훤당 김굉필, 일두 정여창, 정암 조광조, 농암 李賢輔(1467~1555), 모재 김안국 등이 중종조에 유풍을 진작시켰다.

면앙정 송순과 농암 이현보에 의해 강호가도가 개창되고 사림정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조 사림과문학의 문풍이 여기에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농암은 청량산 아래 분천을 점유하고 강호가도를 구가하면서

7) 홍양호, 『이계집』 권13, 외사전편4, 『이계구곡기』, “集九曲之勝 而上下溯回 則可甲乙於嶺之陶山 海之石潭”

8) 기대승, 『高峯集』 往復書卷1, 『先生前上狀』 참조

9) 조익, 『浦渚集』 제22권, 『雜著』, 10首 참조

새로운 자연미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약봉의 부친인 청계 김진은 농암 이현보와 교유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지어진 청계 김진의 시 한 편을 소개한다.

친구의 술통 말에 신고 먼 길을 건너 왔네	馱載朋樽涉遠程
하루 밤에 어찌 해묵은 정을 다 펼치리	一宵那展隔年情
백발에 꽃 꽃고 배 돌리는 그곳에	簪花白髮回船處
황혼의 강변 정자에 한줄기 피리소리	落日江亭一笛聲 ¹⁰⁾

청계는 농암과 더불어 강호가도를 구가했다. 농암이 중심이 된 분천가단은 모재 김안국, 퇴계 이황, 청계 김진, 금계 황준량 등으로 이루어지며 때때로 분천에 모여 뱃놀이를 하며 강호가도를 구가 하였다. 청계 김진은 농암과 나이 차이로 보면 33세이다. 친구관계는 아닐 것 같고, 사제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보인다. 퇴계와는 한 살 차이로 왕래가 있었던 것 같다. 임하 천전에서 청량산 분천까지는 꽤 먼 거리다. 청계는 이 산길을 말을 타고 찾아왔다. 배, 피리소리 등의 소재에서 일어나는 흥취는 강호가도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자연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농암은 도연명처럼 즐기고 싶어 했다. 같은 시기 청계 김진은 임하의 경관을 점유하기 시작했고 퇴계는 도산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임하를 따라 경관이 좋은 곳에 정자를 짓고 자연을 음미하며 반변천 굽이굽이에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다음은 선유정을 읊은 시이다.

반짝이는 물결 따라 단풍은 비단 같고	閃閃波紅楓倒錦
달빛가득 모래사장은 흰 비단을 펼친 듯	盈盈沙白月鋪縑
평생에 못다 한 강호의 정취를 위해	生平未盡江湖趣
늙은 사진 그러서 남쪽 벽에 부친다오	爲寫衰眞寄舍南 ¹¹⁾

10) 『聯芳世稿』 권1, 『淸溪先生逸稿』, 『留贈愛日堂主人』.

이 시는 도연폭포 주변에 ‘선유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학문에 몰두하던 시절 가을날 단풍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반변천의 경관을 보고 감동해서 지은 시이다. 선유정은 1567년 썸에 지어진 것이다. 특히 ‘生平未盡江湖趣’라고 하여 평생을 강호의 정취에 취해 살아 왔지만 그래도 충족이 되지 않았다. 이 못다한 정취를 죽어서도 즐기기 위하여 사신을 그려 남쪽 벽에 붙인다고 했다. 청계 김진의 이 시에는 이미 강호가도의 정취에 폭 빠져서 임하의 새로운 산수 자연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 김극일은 어려서부터 호걸스럽고 마음이 너그러웠다. 부친인 판서공을 따라 성균관에 노닐며 말을 하면 문득 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서울의 사대부들이 다투어 서로 전하기를 신동이라고 하였다. 점점 자라서 도산 이선생의 문하에 노닐었는데 문학이 탁월하고 일찍이 선생에게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인정받았다.¹²⁾

약봉은 타고난 재질과 함께 풍채와 언변을 두루 갖추었으며 학문에 대한 열성이 돋보여 일찍부터 스승과 동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대산 이상정은 “대저 靑溪 金璣이 아버지로서 앞에서 經史를 키우고 미덕을 심었으며 퇴계가 스승으로서 뒤에서 덕을 이루고 재능을 길렀으니 비록 드높은 자질을 하늘로부터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薰陶하고 물들인 공은 아버지와 스승에 근본한 것이 오히려 많은 것이다.”¹³⁾라고 하였다. 퇴계 선생은 약봉에게 ‘文學華瞻’이라 하여 문학성을 인정하였고 약관에 과거에 급제한 약봉을 퇴계선생이 몹시 공경하고 중히 여겼다.¹⁴⁾

11) 『聯芳世稿』 권1, 『靑溪先生逸稿』, 『仙遊亭』.

12) 李栽, 『藥峯先生金公墓誌銘』. “先生其長也 幼豪爽俊逸 從判書公 遊太學 出語輒驚人 洛下大夫 士爭相傳 熟稱神童云 少長遊陶山李先生之門 文學卓然 早成先生甚器重之嘗因”

13) 『大山集』 43권, 『聯芳世稿序』.

14) 柳道源, 『退溪先生文集攷證』 卷之三, 第五卷詩, 次韻星牧云云, 金伯純 號藥峯 鶴峯之兄 居安東 生嘉靖壬午 文學華瞻 弱冠 登第 遊門下 先生甚敬重之

1546년(명종 1) 25세에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교서관정자에 임명되었다. 그 뒤 수의부위·사용을 거쳐 1551년 30세에 승문원정자·저작·박사가 되었다. 1553년 32세에 승정원주서가 되고, 얼마 뒤 형조좌랑·사헌부감찰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洪原縣監을 역임하였다. 1556년 35세에 淸洪道都事를 거쳐 1558년 37세에 성균관직장·형조정랑·예조정랑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 해 경상도도사를 거쳐 1560년 39세에 다시 예조정랑이 되었다. 얼마 뒤 군기시첨정과 평해 군수를 역임하였다.

1566년 45세에는 사재감첨정을 거쳐 다시 예천군수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1569년(선조 2) 48세에는 성균관사성과 司禦寺正을 거쳐 외직으로 성주목사를 역임하였다. 성주목사 시절 도산으로 가 스승인 이황을 만난 일이 있는데 이 때 이황이 『啓蒙翼傳書』라는 책을 문인들에게 正書하게 하여 역동서원에 갖다 두게 한 일이 있었다. 이것을 보고 『啓蒙翼傳』을 성주에서 간행해 배포하여 스승 이황으로부터 격려를 받기도 하였다. 또 성주목사 시절 퇴계선생을 임하로 모셔서 뱃놀이를 한 적이 있었다. 이때 퇴계선생과 주고받은 시에서 '임하구곡'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약봉은 반변천 강가인 임하 천전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본 자기집 경관을 중심으로 『臨河二十六詠』을 읊었다. 약봉의 『臨河二十六詠』은 퇴계의 『陶山雜詠』과 주희의 『雲谷二十六詠』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환골탈태와 점철성금의 수용과 변용을 거쳐 창작된 산수문학의 명품이다. 주희의 운곡을 알고 구곡을 알진대 임하구곡을 구상하며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약봉은 『주자전서』에서 전고를 많이 사용하였다.

약봉은 주희의 산수시가에서 얻은 미의식으로 임하의 경관을 자유로이 읊었으며 『臨河九曲』을 바탕으로 구가된 강호가도는 향토색 짙은 성리학 적 미의식으로 표현했다.

『臨河九曲』에서 구가한 강호가도는 주희와 퇴계의 시가를 擬望하여 構想한 擬構의 景을 모색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자신의 일상 속에서 찾은

자연미의 발견은 상자연의 산수지락을 경험한 미적체험 없이는 구상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약봉은 임하의 아름다운 미의 늪에 빠져서 걱정적인 순간을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산수시기는 천부의 문학과 후천적 성리학적인 학문의 박식함이 없으면 창작해내기 힘든 작품이었다. 약봉은 임하의 구곡을 운영하면서 그의 일상을 주희와 퇴계처럼 우아하고 숭고하게 향유하고 있었다. 약봉의 ‘임하구곡’을 바탕으로 한 강호가도는 孤高俊潔하고 淸婉하여 세속기가 없다는 품격의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¹⁵⁾

그의 시 곳곳에는 주자의 시를 엿본 흔적이 자주 나타난다. 주희의 「무이도가」를 의식한 임하구곡의 형성은 이 「臨河二十六詠」 안에 이미 수용되고 있었다.

약봉은 퇴계 선생의 산수시가에 자주 차운하기도 하고, 소수서원의 죽계에 대해 부를 짓기도 했다. 정유일, 김부륜, 금응협 등과도 어울려 시를 지었고 청량산과 분천을 오가며 농암자제들과 어울려 강호가도를 구가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시 한편을 소개한다.

아름다운 오천의 여러 선비들	有美烏川士
정공을 따라서 같이 왔구나	同隨鄭驛來
맑은 놀이는 참으로 욱되지 않으니	淸遊眞不忝
오직 명월대에 부끄럽도다	獨負明月臺 ¹⁶⁾

약봉은 산수시가를 즐겨 썼다. 그가 교유했던 향토의 선비들 김부륜, 김부필, 김언기 등 오천의 군자들을 비롯하여 정탁, 김우옹, 한강 정구 등과 교유한 흔적이 많았다. 퇴계의 제자 중에 과거도 포기하고 자연에 몰두했던 송암 권호문과는 절친했으며 청성산수에 대해 주고받은 시들이 많았

15) 신두환(2014).

16) 『聯芳世稿』 권2, 『藥峯文集』, 「懷子中, 惇敍, 夾之」.

다. 특히 단사협, 명월대 등 청량산의 산수를 노래한 시들이 많았고, 또 아우들과 주고받은 임하의 산수시들이 많았으며 주희의 산수시기를 좋아해서 擬望하고 퇴계선생의 시를 본받으면서 임하구곡이 형성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임하구곡은 부친인 청계 김진이 개척하였고 장남인 약봉 김극일을 비롯한 다섯 형제들에 의해서 경영되고 향유되면서 그 위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약봉은 관료생활보다 임하의 자연을 더욱 사랑했다.

3. 임하구곡의 경관 고증과 강호가도

약봉의 다음과 같은 시에서 임하구곡의 위상이 드러난다.

九曲灘 水自鯉淵至仙遊淵凡九曲(물은 이연부터 선유연까지 모두 구곡이다)

무이산 아홉 구비 시내를 노닐었던	武夷九折溪
그 고상한 자취 우러러 감탄하노라	晤嘆仰高躅
명칭은 비록 우연히 같지만	名稱雖偶同
뛰어난 그 여운 누가 다시 이으리	絕響誰復續
우두커니 서서 그 당시를 생각하며	佇立想當年
위연히 탄식하며 무이도가를 부르노라	喟焉歌棹曲 ¹⁷⁾

이 시는 제목 ‘구곡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하구곡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여기에 주를 달아 ‘강물은 이연에서부터 선유연까지 모두 구곡이다(水自鯉淵至仙遊淵凡九曲)’라고 하여 임하구곡의 시작과 끝부분을 알려 주고 있다.

약봉은 임하구곡을 바라보며 주희의 무이구곡과 비교하고 있다. 주희가

17) 『聯芳世稿』 권2, 『藥峯文集』, 『家園雜詠十二首』.

무이구곡에서 노닐었던 그 고상한 정취를 흠모하여 몇 번이고 『武夷棹歌』를 보았던 모양이다. 약봉은 무이구곡의 정경을 차경하여 그 명칭은 모방하여 같이 부르지만 그 속에 흐르는 고상한 여운을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약봉은 저 굽이쳐 흐르는 임하구곡 속에 『무이도가』의 정취를 살려낼 시상을 생각하며 몇 번이고 『무이도가』를 읊조리며 탄식하고 있다. 끊어진 『무이도가』의 고상한 여운을 생각하며 누가 다시 그 정취를 이룰 것인가 반문한다. 우두커니 서서 주희의 옛날을 상상하며 마치 『도산십이곡』에서 ‘여던 길 아니열고 어쩔꼬’처럼 『무이도가』를 부르며 탄식하고 있다. 약봉은 이 시에서 자기가 임하구곡을 경영하여 고상한 정취를 이룰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일찍이 김진은 구곡이라는 명칭을 써서 시를 지은 적이 있었다. 청계 김진은 80세까지 살았으며 약봉은 아버지보다 22년 뒤에 태어나 5년 더 살았다. 거의 같은 시대를 살면서 임하구곡을 경영하며 부자간에 누렸을 강호가도를 상상해 보면 임하구곡은 청계 김진에 의해 이미 경영되었고 약봉이 이어받아 구곡을 완성하려는 뜻을 볼 수 있다. 약봉은 임하구곡을 완성하였다.

‘臨河九曲’이란 명칭은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續內集』에 실려있는 『次韻星牧金伯純見訪』에 나온다. 이 시에서 퇴계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오마와 약속한 구월 가을 임하에 이르니	五馬期從九月秋
정정 벌목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온다	丁丁伐木遠尋求
임하구곡 따라서 시가 보이고	臨河九曲因詩見
노 하나로 작은 배를 어찌 감당하랴	一棹何當上小舟 ¹⁸⁾

이 시에 대한 柳道源(1721~1791)의 고증이 있다. 柳道源은 『退溪先生

18) 『退溪先生文集』 卷之五, 續內集, 『次韻星牧金伯純見訪』.

文集攷證』卷之三, 第五卷詩「次韻星牧云云」에서 이 시를 다음과 같이 고증하였다.

김백순의 호는 약봉이고 학봉의 형이다. 안동에 살았고 가정 임오년(1522) 생이고 문학에 뛰어났다. 약관에 과거에 급제하고 퇴계선생의 문하에 노닐었으며 선생이 몹시 아끼고 중하게 여겼다. 오마는 한나라 제도를 고찰해 보던 데 태수는 네 마리의 말이 수레를 끌고 거기에 녹봉이 이천석이고 우측에 에 비용 말이 따른다. 고로 오마로써 귀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임하현은 안동부로부터 동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경포대-한송정-백운정-아양루-송석정-선유정-도연-모로굴-쌍경대 이것을 구곡이라고 하였다.”¹⁹⁾

위의 고증을 바탕으로 퇴계의 시를 분석해 본다. 이 시의 제목 「次韻星牧金伯純見訪」에 보이는 ‘星牧’은 성주목사이다. 약봉이 성주목사로 나아간 것은 1569년이였다. 퇴계 69세 때이다. 이 시에 의하면 五馬는 성주목사의 벼슬을 하는 김극일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의 신분을 귀하게 존중하며 동시에 다섯 형제들을 함의하는 중의의 표현인 것 같다.

그해 구월에 퇴계는 성주목사 약봉 김극일과 임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던 것 같다. 아마도 약봉이 퇴계선생을 임하로 초청하였던 것 같고 퇴계선생이 가을에 약속을 따라 임하를 방문했던 것 같다. 약봉은 퇴계선생을 모시고 배를 타고 임하의 반변천을 거슬러 올라갔다.

어디선가 나무를 벌목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반변천의 경관을 따라 전개되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어우러져 공감각적인 미감을 생동감있게 표현해 내고 있다. 아마도 약봉의 출세로 번성해가는 의

19) 柳道源, 『退溪先生文集攷證』卷之三, 第五卷詩, 「次韻星牧云云」; 金伯純, 號藥峯. 鶴峯之兄, 居安東, 生嘉靖壬午, 文學華瞻, 弱冠登第, 遊門下, 先生甚敬重之. 五馬; 案漢制, 太守駟馬, 其加秩中二千石, 乃有右駟, 故以五馬爲貴. 臨河九曲; 臨河縣, 在安東府東三十里, 鏡浦臺, 寒松亭, 白雲亭, 峨洋樓, 松石亭, 仙遊亭, 陶淵, 毛老窟, 雙鏡臺, 是爲九曲.

성김씨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다.

퇴계는 임하구곡을 따라서 시가 보인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문제의 '임하구곡'이란 용어가 처음 발견되는 것이다. 퇴계는 '임하구곡'을 따라 시가 보인다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임하구곡에 대한 명칭에 따라 훌륭한 경관이 나타나고 그 경관을 따라 시상이 떠오른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다.

“하나의 노로 작은 배가 이 강물을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시구 속에서 무언가 전하려는 속뜻이 함의되어 있는 것 같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학문이다. 구곡 시가를 보면서 떨쳐버릴 수 없는 입도차제는 논어의 '學文如逆水行舟 不進則退'이다. 약봉이 추구하는 학문은 성리학이고 하나의 노란 여러 형제들이 있음을 의식하고 형제들이 힘을 합쳐서 학문에 정진하길 바라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

형제들은 金克一, 金守一, 金明一, 金誠一, 金復一 소위 의성김씨 오룡이라 불리던 사람들이다. 이들에 의해 후대의 학업이 대성될 조짐을 보고 열심히 할 것을 권장하면서 임하구곡을 입도차제의 장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찌됐건 퇴계의 이 시를 통해서 '임하구곡'이 다시 한 번 고증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임하구곡은 퇴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증명된다. 임하구곡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유도원은 “임하현은 안동부로부터 동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경포대-한송정-백운정-아양루-송석정-선유정-도연-모로굴-쌍정대”라고 구체적으로 밝혀 놓고 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낳게 했던 임하구곡의 아홉 위치가 고증된 것이다. 이 고증을 바탕으로 임하구곡의 강호가도에 대한 실체를 밝혀보고자 한다.

임하구곡은 그 명칭도 발견되었고 그 지명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그 시는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지명의 경관에 대해 읊은 시들을 중심으로 그 경관의 대략은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 시들을 바탕으로 임하구곡의 경관을 유추해 보기로 한다.

제1곡 경포대는 어디일까? 유도원은 제1곡은 경포대라고 하고 있다. 지금의 사빈서원 입구 비리실이 바로 이연이었다. 그 근방 개호송 맞은편 독산의 너럭바위를 경포대라 했다고 한다. 이것은 앞에서 약봉 김극일이 임하구곡을 이연에서 선유정까지라고 주석한 것과도 일치한다. 이연이 곧 경포대이다.

「鏡浦臺」

물과 하늘은 등왕각 같고	水天際閣一
기상은 악양루의 천배이다	氣象岳陽千
동해물 북두로 다 마시고	東溟斟北斗
취하여 경호가에 기대어 있다	醉依鏡湖邊 ²⁰⁾

이 시는 약봉이 읊은 「경포대」 시이다. 이것은 시적 정황상 강릉의 경포대를 보고 쓴 것이다. 이 근방 고개 위에 약봉의 할아버지가 지은 한송정 터가 있었다. 아마도 강릉의 경포대와 한송정의 명승지를 의식하고 한송정 이름에 비교가 되게 한송정 밑의 바위를 경포대라고 한 것 같다. 약봉은 鯉淵으로부터 선유연 까지 임하구곡을 설정하고 있다. 약봉은 「임하26영」에서 이연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鯉淵」

서강의 깊이는 끝이 없으니	西江深不極
쌍쌍이 다니는 잉어가 번식한다네	六六此繁殖
바람과 벼락이 일어남이 없는 때에	風雷起無時

20) 『聯芳世稿』 권2, 『藥峯先生文集』, 「鏡浦臺」.

그 변화를 누가 짐작하겠는가

變化誰能測²¹⁾

이연은 비리실이라 불리며 지금의 사빈서원 입구 좁 되는 강의 깊은 소로서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경포대 밑의 맑고 깊은 소를 보고 이연이라 하였다. 주희의 무이도가 제 일곡이 ‘一曲溪邊上釣船’으로 강변에서 시작하였듯이 약봉도 구곡의 처음이 임하의 강변 이연이라고 하였다. 임하구곡을 유람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배를 타야했던 것 같다. 아마도 퇴계 선생을 모시고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선유정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연은 임하구곡의 시발점이다.

제2곡은 한송정이다. 약봉은 『임하 이십육영』에서 한송정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廢亭 (寒松亭)

선조에게 아름다운 운치가 있었으니

先祖有佳致

정자를 지어서 강변을 내려다 볼 수 있게 한 것 作亭俯江郊

벼슬살이 이십년 만에

宦遊二十載

비바람에 떠내려가는 것을 면치 못했으니

不免風雨漂²²⁾

유도원은 임하구곡의 제2곡을 한송정이라고 하였다. 약봉은 일찍이 임하 천전을 중심으로 『臨河二十六詠』을 읊으면서 한송정을 읊은 적이 있었다. 위의 시가 바로 그것이다. 한송정은 그의 할아버지 김예범이 임하의 강변 물엄곡이란 계곡 위에 지은 것이다. 임하를 굽이쳐 흐르는 반변천의 교외를 굽어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다. 김예범에 의해서 이미 산수미의 완상은 시작되고 있었다. 약봉은 허물어져가는 한송정을 바라보며 이 한가로운 경치를 완상할 여가도 없었던 지난 20여년의 벼슬살이를 회

21) 『聯芳世稿』 권2, 『藥峯先生文集』, 『臨河二十六詠, 鯉淵』.

22) 『聯芳世稿』 권2, 『藥峯先生文集』, 『臨河二十六詠, 廢亭 (寒松亭)』.

고하며 부질없는 인생의 허무감을 느낀다. 약봉은 임하구곡의 경영을 꿈꾸며 ‘무이도가’의 비슷한 이미지를 비교하여 포치시키고 있다.

제3곡 백운정이다. 이것은 부암 위에 지어진 정자이다. 청계 김진은 이곳 부암에 집을 짓고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였다. 그가 백운정을 읊은 시는 다음과 같다.

절벽을 깎아 정자 세운 푸른 산머리,	鑿壁開亭翠巘頭
강산도 명미하다 사람 눈길 씻어 내네.	江山明媚拂人眸
한낮의 맑은 물에는 물고기 무너 얼비치고	日臨鏡面魚紋動
구름 걷힌 하늘 가운데 기러기 떼 날아가네	雲掃天心雁字稠
고을 원님 노닐 곳으로 일찍부터 알려지니	百里遊歌會物色
정자 부근 풀꽃들도 아름다운 덕을 머금었다.	一區花草亦光休
술동이 앞 가없는 풍류 좋은 줄 알거니와	知有樽前無窮樂
자손들이 劉伶처럼 취할까봐 걱정일세	祇恐兒孫醉似劉 ²³⁾

약봉은 「임하26영」에서 다음과 같이 부암을 읊었다.

傳巖 (舍弟景純築亭其上)	
푸르른 바위에서 맑은 물굽이 굽어보니	翠巖俯澄灣
하늘과의 거리가 겨우 5척이라네	去天纔尺五
꼭대기에는 무심하게 구름만 오가고	上有無心雲
어느 때나 장마 비를 만들어 뿌리려나	何時作霖雨 ²⁴⁾

부암은 지금 현재 백운정이 있는 바위이다. 청계 김진은 1567년 즈음에 景純 龜峯 金守一(1528~1583)에게 백운정을 짓게 하였다. 여기에서 청계 김진이 임하의 경관을 운영한 흔적이 발견된다. 이 부암의 꼭대기에 백

23) 『聯芳世稿』 권1, 『清溪先生逸稿』, 「題白雲亭」.

24) 『聯芳世稿』 권2, 『藥峯先生文集』, 「仙遊亭 四首」.

운정이 있다. 강변의 아름다움은 끝없이 펼쳐지고 멀리 약산이 바라보이는 곳이다. 약봉은 백운정의 이름을 의식한 듯 구름을 강조하고 비를 연결시키고 있다. 백운정은 그 경치가 아름답고 자주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약봉은 백운정 4수를 읊었다. 그 중의 네 번째 수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누가 강산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했는가	誰謂江山非我有
그윽한 경치 찾기를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冥探幽土不曾停
때때로 호은정 가운데서 취하여	時兼壺隱亭中醉
늦게 홀로 선유연 못가에서 술을 깬다오	晚獨仙遊潭上醒
.....25)

누가 강산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고 했는가? 이 표현은 소동파의 「적벽부」 중에 “또 대저 천지 사이의 사물에는 제각기 주인이 있어 진실로 나의 소유가 아니면 비록 한 터럭일지라도 가지지 말 것이나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산간의 밝은 달은 귀로 얻으면 소리가 되고 눈으로 만나면 빛을 이루어서 이를 가져도 금할 이 없고, 이를 써도 다함이 없으니 이는 조물주의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나와 그대가 함께 누릴 바로다.”²⁶⁾라고 한 부분을 의식한 것이다. 약봉은 그래서 그윽한 임하구곡을 오르내리며 그윽한 경치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자연을 나의 소유라고 외치고 싶어 했다.

약봉은 때때로 호은정부터 취해서 선유연까지 가서 깬다고 하였다. 약봉은 이미 구곡을 향유하기 시작했다. 유독 자연을 사랑하고 문학을 좋아

25) 『聯芳世稿』 권2, 『藥峯先生文集』, 「白雲亭 四首」.

26) 소동파, 「赤壁賦」, “且夫天地之間 物各有主 苟非吾之所有 雖一毫而莫取 惟江上之清風 與山間之明月 而得之而爲聲 目遇之而成色 取之無禁 用之不竭 是造物者之無盡藏也 而吾與者之所共樂”

했던 약봉의 산수벽을 알만도 하다. 이러한 산수지락에 강호를 구가하며 임하구곡을 모색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미의식일 수가 있다. 약봉은 그윽한 경치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16세기 주자의 무이구곡을 통한 새로운 자연미의 발견을 위하여 약봉은 임하구곡을 수없이 오르내렸다. 임하구곡 경치의 반은 백운정이고 나머지 반은 선유정이다. 약봉은 선유정에서 술을 깬다고 하였다. 약봉은 구곡을 이연에서 선유정까지라고 하였다.

제4곡 아양루는 山水亭으로 추측된다. 약봉이 읊은 산수정시는 다음과 같다.

하늘 우뚝 솟은 외로운 정자	孤亭霄漢上
흔쾌하게 올라서 내려 보네	縱目快登臨
물이 맑으니 비단이 날리는 듯	水白飛文練
푸른 산은 옥비녀 뽑아 놓은 듯	山靑抽玉簪
움직일 때 물줄기는 지자의 마음	動時明智樂
오묘한 산줄기는 인자의 마음	妙處驗仁心
이 뜻을 아는 사람 그 누구일까?	此意人誰會
아양의 줄 없는 백아의 거문고일까?	峨洋有素琴 ²⁷⁾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峨洋’이란 용어가 나온다. 아양은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에 나오는 것이다. 백아가 높은 산의 정취를 생각하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높은 산의 정취를 말하고 백아가 넓은 물의 정취를 생각하면서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만경창파의 넓은 물을 이야기 했다. 백운정보다 위에 있었던 것 같다. 약봉은 자기가 산수를 즐겨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여기에서 산과 수의 조화를 논한 산수정은 아양루란 용어와 묘한 일치를 이룬다. 그래서 유도원이 주장하

27) 『聯芳世稿』 권2, 『藥峯先生文集』, 『山水亭』.

는 임하구곡의 제4수는 아양루는 산수정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연방세고에는 아양루라고 직접 읊은 것은 없다. 산수정과 아양루의 묘한 일치는 그 위치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이상으로 임하구곡의 제4곡에 대한 검증 을 마친다.

제5곡 松石亭은 永興院이 있었던 곳이다. 주희가 무이구곡에서 제 오 곡에 서당을 지었듯이 임하구곡 중 제5곡은 서원이 된다. 이곳은 영흥원 이라는 서원이 있었던 곳이다. 의성김씨 청계공파의 서원은 사빈서원, 임 천서원 등의 이름이 있었으며 이 오곡에 서원이 위치하고 있었다. 약봉은 『家園12曲』에서 영흥원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이 땅은 옛날의 이름난 고을	此地古名郡
산천도 또한 빼어난 곳이었다오	山川亦秀拔
어찌 글공부를 일삼지 않았으리오	何不事絃誦
아홉 현의 끝에 거함을 즐기도다	甘居九縣末
창이 있는데 어찌 화답이 없을까	有唱豈無和
의인이 나아가 목마른 듯 답하네	就義人若渴 ²⁸⁾

이 시의 끝에는 이러한 주석이 달려 있다. 안동부에는 모두 아홉 현이 있는데 본 현에 옛날에는 선비가 없었으나 이번에 처음 서원을 창건하였 다. 현은 대개 옛날 屈火郡(당시의 임하현)이다. 약봉은 이곳을 심미적으 로 주목하고 있었다. 이곳을 직접 답사해 보니 이 앞의 강에는 높은 바위 가 하나 있었다. 상암이라고 하였다. 약봉이 상암을 읊은 시는 다음과 같 다.

過巖巖 巖在永興東水邊 상암을 지나며(바위는 영흥원 동쪽 물가에 있다.)

28) 『聯芳世稿』 권2, 『藥峯先生文集』, 『家園雜詠十二首, 永興院』.

상암은 영흥원 동쪽 물가에 있다고 하였다.

우뚝 솟은 바위 돌 기둥같고	屹立如砥柱
빼어난 높이는 수십 길이 된다	拔出數十丈
매번 홍수로 물이 불어날 때면	每當汎漲時
물결이 부딪쳐서 그 이마를 지나간다	激水過其額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일오	是豈水之性
성품에 반하는 것 우리 당(유교)이 아닐세	反性非吾黨 ²⁹⁾

이 바위는 영흥원 동쪽 강가에 있다고 하였다. 이곳에는 옛날에도 송림과 바위가 어우러져서 있었던 것 같다. 소나무와 바위 때문에 ‘송석’이란 지명이 생겼을 것이다. 이곳에 송석재가 있었으며 이곳에 송정이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을 송석정이라 불렀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제 5곡은 이 바위로 인해 지금도 찾을 수 있다. 입하구곡의 제5곡 송석정의 경관고증은 이렇게 추측해 보았다.

제6곡 仙遊亭은 약봉의 부친 청계 김진이 그 아름다움을 시로 읊었다고 서두에서 밝혔다. 약봉은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다.

아버지께서 이곳을 사랑하시어	家君愛此地
중들을 시켜 세운 작은 정자	幹僧開小亭
아래로 굽어보니 맑고 맑은 흰 물결	俯瞰澄澄白
위로 쳐다보니 바위마다 푸르다	仰對巖巖靑
옛 사람도 이곳을 즐겼던가	昔人樂此否
이곳은 수련할만한 곳일세	茲焉可鍊形 ³⁰⁾

이 시 끝에 “이곳은 조용 선배가 독서하던 곳이다. 아버지께서 중들에게 명하시어 정자를 지었다. 바위 위는 경치가 몹시 맑고 아름다웠다. 도

29) 『聯芳世稿』 권2, 『藥峯先生文集』, 『家園雜詠十二首, 過額巖』.

30) 『聯芳世稿』 권2, 『藥峯先生文集』, 『家園雜詠十二首, 仙遊亭』.

연폭포에서 5리 떨어진 곳에 있다.(此地趙鏞先輩讀書處家君命僧開亭巖上甚清絕在落淵五里許)”라고 기록하고 있다.

선유정은 임하구곡 중 가장 중심을 이루는 곳이다. 선유정은 도연폭포로부터 5리의 거리에 있다고 하였다. 이곳은 경치가 뛰어난 곳이었다. 여기서 옛사람은 정몽주의 제자였던 조용을 가리키며 여기에 은거하여 책을 읽었던 것을 의식하여 지은 것이다.

학봉의 제자였던 갈암 이현일의 『갈암집』 부록, 7월 조항에 ‘仙遊亭에 오르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 기록에 “이 정자는 임하현 남쪽에 있다. 옆에 仙刹寺라고 하는 작은 절이 있고 계곡이 그윽하였으며 못으로 폭포가 떨어지는 좋은 경치가 있었다. 여기에 모였던 士友들은 노소를 합쳐 모두 수십 인이었는데, 며칠을 머물다가 돌아왔다.”³¹⁾라고 하였다. 선유정은 청계 김진이 향유하였고 약봉이 향유하였으며 그 뒤에도 명승지로서 보존되고 있었다. 학봉 김성일도 선유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仙遊亭種竹』

옥협 주위에 신선 사는 굴이 있고	玉峽圍仙窟
청산이 남두성 가 꽃혀 있구나	靑山插斗傍
창은 비어 흰 구름이 방석에 닿고	窓虛雲出席
누대 높아 달빛이 침상에 드네	臺迥月侵床
벼슬함은 애당초 소원 아니고	結駟初非願
은거할 생각 끝내 잊지 않았네	焚魚竟不忘
이에 먼저 차군을 가게 해서는	先教此君去
거친 수풀 제거하고 길 열게 하네	開逕刷榛荒 ³²⁾

학봉의 문집에는 “여러 형제들과 함께 선유정에서 학업을 익혔다. 아버

31) 이현일, 『갈암집』 부록, 7월 조항, 『登仙遊亭』.

32) 『聯芳世稿』 권5, 『鶴峯先生文集補遺』, 『仙遊亭種竹』.

지계서 일찍이 藥山 바위 계곡에 선유정을 지었는데 수석의 그윽한 풍치가 있었다. 선생의 형제들이 이곳을 오가면서 공부하여 그 정자가 비어 있는 달이 거의 없었는데, 마음을 가리얏혀 생각하고 살피는 공부는 대개 여기서 얻은 바가 많았다. 일찍이 銓郎으로 있다가 휴가를 얻어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여기에서 글을 읽었다. ‘대나무를 심다.[種竹]’라는 율시 한 수가 ‘仙亭詩帖’에 나와 있고, 정자 옆에 있는 늙은 회나무 한 그루도 선생이 손수 심은 것이라고 한다.”³³⁾라고 기록되어 있다. ‘仙亭詩帖’에 기록된 율시 한수가 바로 이 시이다. ‘仙亭詩帖’은 아마도 선유정을 읊은 여러 사람의 시를 모아 편집한 시첩일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서 학봉은 이곳에 은거하여 도를 이루고 싶은 ‘隱求’의 세계를 회구하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곳에서 형제들과 자주 어울려서 공부하고 즐겼던 것으로 보아 임하구곡은 아버지 청계 김진과 오룡으로 불리는 다섯 형제가 함께 향유하고 강호가도를 구가한 현장으로 고증되는 것이다.

제7곡은 陶淵이다. 도연폭포는 ‘落潭’, ‘落淵’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약봉은 『임하26영』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落潭 폭포

양 언덕을 갈라서 문을 만드니	兩崖劈作門
큰 물결이 하늘에서 흘러내리네	洪波半天注
사시에 우레가 천지를 진동하며	振壑四時雷
공중에서 온 동굴에 쏟아 내리네	飛空一洞雨 ³⁴⁾

도산에는 폭포가 없는 것이 『도산잡영』의 26경관을 이루는데 큰 결점이 었다. 주희는 운곡의 26경을 설정하면서 폭포를 읊었다. 임하에는 도연폭포가 전설과 함께 전해진다. 낙담은 바로 도연폭포이다. 이 앞을 선유연이

33) 김성일, 『학봉집』 부록, 제1권, 『연보』, 가정 45년(1566, 명종 21) 병인. 선생 29세.

34) 『聯芳世稿』 권2, 『藥峯先生文集』, 『臨河二十六詠』.

라 하였고 약봉의 부친 청계공은 선유정이란 정자를 지었다. 선유란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뱃놀이를 상상하는 것이다. 청계공은 농암 이현보에게 술을 싣고 찾아가 강호가도를 향유했던 풍류가 있는 선비였다. 임하의 26경을 설정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관이 도연폭포이다. 陶淵瀑布 隔塵嶺 仙遊蒼壁 이 세 곳이 '陶淵三絶'이며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도연폭포는 옛날 도연의 용과 선찰사의 부처 사이에 강줄기를 두고 다투다가 용의 꼬리가 격진령의 허리를 잘라버리자 생겨나게 되었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마치 주희가 무이구곡에서 홍교의 도사를 떠올리듯이 이 도연폭포의 전설을 상기시키는 것은 이 시의 앞 두 구이다. 폭포 양편의 닳고 닳은 거대한 硯岩은 기름바위라 불렸고 폭포 밑은 질그릇 같이 움푹한 沼를 이뤄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었다. 질그릇 같이 움푹 들어간 소의 모습에서 도연이란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이 근방에 靑溪 金璣 六父子가 공부하던 藏六堂도 있었다고 한다.

이 지역의 바위는 층층이 쌓여 층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강가의 절을 읊은 퇴계나 주희처럼 약봉은 선찰사를 설정했다. 이 절은 신라시대 때 창건된 고찰로 임하현에서 동쪽으로 15리쯤 떨어진 약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道士가 신선이 되는 靈藥을 만들기 위하여 丹沙를 고았다는 부뚜막의 슬인 丹竈를 떠올려 소재로 삼았다. 주자가 무이산에서 시를 읊으면서 선계의 도가들을 자주 수용하였듯이 이 시에서도 신선이 자주 추구되고 있었다. 달 속의 나무인 계수나무 숲을 소재로 삼아 선계를 전망한 시상이 돋보인다. 시의 구상이 신선하고 상상력이 넘친다. 임하구곡 경관의 핵심에는 도연폭포가 있다.

임하구곡 후반부의 최고의 중심은 선유정인 것 같다. 육곡에서 구곡 까지는 선유정을 중심으로 모여져 있다. 도연폭포를 지나면 동서로 흐르던 물이 굽이쳐서 남쪽으로 굽어 돈다. 8곡과 9곡은 이 방향으로 전개된다.

제8곡 毛老窟은 장육당을 뜻하는 것 같다. 또 모로라는 용어는 毛老臺,

즉 쇠로 만든 ‘기’자 받침, 혹은 쇠를 불리는 곳을 말하기도 하고 모로 단청이라 하여 처마 끝에 단청을 입히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단청이란 말에서 사찰을 연상할 수도 있다. 또 ‘모레이’라는 의미로 보면 귀퉁이 끝이란 의미도 있다. 선찰사가 그 모퉁이에 있었고 선유정 부근에 장육당이 있었다.

누워서 어릴 적 놀던 형제들 생각하며	臥念小游弟
가을 나무 아래 외로이 찾아 든다	孤棲秋樹根
학문의 세계는 바야흐로 진보하고	文場方進步
도학의 울타리를 살피려 하겠지	理屈欲窺藩
못이 가까워 물고기 사는 줄 알겠고	潭近知魚食
바위가 기이하니 호랑이가 웅크린 듯	巖奇對虎蹲
신선이 모로혈에 숨어사니	仙人毛老在
도학의 비결은 몇 번이나 의논 하였나	秘訣幾參論 ³⁵⁾

이 시는 약봉이 셋째 동생 학봉을 생각하며 지은 시이다. 시 끝에 “당시에 사순 김성일이 관직에서 밀려나 선유정에서 독서를 하였다. 정자에는 쌍석이 있는데 마치 호랑이가 웅크린듯하고 근방에는 또 모로혈이 있다. 정자 북쪽 폭포 가에 용혈이 있다.

도연폭포의 남쪽 언덕에 玉屏書齋를 지었다. 이 언덕은 藏六原이라고 일컫는데 仙遊亭 북쪽에 있으며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이는 곳에 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물이 감돌아 흘러 그윽한 경치가 있는 곳으로, 선생이 일찍이 여기에서 학문을 닦을 뜻이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고을 사람들을 시켜 공사비를 모으고 집을 짓게 해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익히는 곳으로 삼은 것이다.”³⁶⁾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모로혈이

35) 『聯芳世稿』 권2, 『藥峯先生文集』, 『書示舍弟』.

36) 김성일, 『학봉집』, 부록, 제1권, 『연보』, 가정 45년(1566, 명종 21) 병인. 선생 29세.

장육당일 가능성이 짙다.

제9곡 雙鏡臺

약봉은 구곡을 이연에서 선유정까지 라고 했고 유도원은 경포대에서 쌍경대까지 라고 했다. 경포대가 이연과 일치하듯이 쌍경대와 선유정이 일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설을 정하고 쌍경대를 유추해 보았다. 이것은 모두 선유정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임하구곡가』는 있었을 것도 같은데 병화에 불타버린 것인가? 약봉의 詩稿가 병화로 인해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그 타고 남은 시가 약 400여 수이다. 그의 시풍으로 보아 임하의 자연경관을 읊은 아름다운 시구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무이도가』의 구곡에서 平川을 바라보듯, 선유정은 도연폭포 너머에 위치하여 도연폭포의 경관과 그 너머에 있는 강변과 특 터진 들판을 볼 수 있다. 주희의 제 구곡을 연상하게 하는 쌍경대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임하댐의 건설로 물속에 잠겼지만 그 봉우리들은 지금도 수면위로 나와 있어 그곳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그곳은 기암괴석들이 도연폭포 근방에 산재해 있었던 곳이다. 필자도 댐으로 수몰되기 전에 도연폭포 밑에서 물놀이하며 고기를 잡은 적이 있고, 도연 폭포 그 위를 건너서 답사를 한 적이 있었다. 정자가 숲 속에 있었으며 마을 안에 산신각이 있었다.

도연폭포를 지나면 우뚝한 벼랑 산이 남쪽으로 걸쳐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오던 강이 남쪽으로 굽이쳐 흐른다. 이 남쪽 벼랑 위의 끝부분에 위치한 바위를 가리키는듯한데 쌍경대는 『연방세고』에는 묘사되지 않고 있다.

산은 마치 쇠를 쌓아 만들어 진 듯

山如積鐵成

오랜 세월 일찍이 신선이 놀았다네	歲月仙遊早
지금은 丹籠만이 쓸쓸히 남아있고	空餘丹籠間
계수나무 숲은 점점 고목으로 변하네	叢桂垂垂老 ³⁷⁾

이 지역의 바위는 층층이 쌓여 층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마치 쇠를 불린 철관을 쌓아 놓은 듯하였다. 선찰사는 신라시대 때 창건된 고찰로 임하현에서 동쪽으로 15리쯤 떨어진 약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道士가 신선이 되는 靈藥을 만들기 위하여 丹沙를 고았다는 부뚜막의 솔인 丹籠를 떠올려 소재로 삼았다. 주자가 무이산에서 시를 읊으면서 선계의 도가들을 자주 수용하였듯이 이 시에서도 신선이 자주 추구되고 있었다. 달 속의 나무인 계수나무 숲을 소재로 삼아 선계를 전망한 시상이 돋보인다. 시의 구상이 신선하고 상상력이 넘친다. 이곳에는 역성혁명에 반대하고 귀양온 정몽주의 문인 趙庸³⁸⁾이란 학자가 이곳에서 은둔해서 글을 읽었다고 한다. 은둔의 고장이고 隱求의 선비사상을 보완하는 자료이다. 선찰사는 유래가 깊은 은둔의 장소이고 독서의 장소였다.

약봉의 둘째 동생 운암 김명일은 백씨인 약봉의 시에 차운하여 선유정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십리 강 따라 펼쳐지는 깊숙한 골짜기	十里沿江洞壑幽
작은 정자에서 운치 있게 바라보는 가을	小亭蕭灑俯清秋
선명한 단풍잎마다 신선의 흥취 돋우고	晴楓面面供仙興
찬비는 쓸쓸하게 객수를 흩트리네	寒雨疎疎散客愁

37) 『聯芳世稿』 권2, 『藥峯先生文集』, 『臨河二十六詠, 仙刹』.

38) 趙庸 : ?~1424. 본관 眞寶이고, 고려 말 조선 초 때의 문신·학자. 초명은 仲傑. 鄭夢周의 문인이다. 예문관대제학·세자좌빈객·성균대사성 예문관대제학·세자좌빈객·행성균대사성검교의정부찬성 조선 건국 초기에는 병으로 성균좌주를 사임하고 甫州(예천의 옛 지명)에서 자제들을 교육하였다. 조용히 이곳 선찰사에서 글을 읽었다고 전한다.

강물이 암벽을 가르고 흘러 백로를 나눈다	水坼巖阿分白鷺
노을에 늘어진 산꼭대기 붉게 물들고	霞連山頂幻丹丘
그 중에 진락을 말하기 어려우니	箇中眞樂難言處
다함께 모시고 지팡이 따라 노닌다	具爾連陪杖屨遊 ³⁹⁾

운암은 십여리에 걸쳐 펼쳐지는 임하의 경관을 중심으로 임하구곡을 설정하고 강호가도를 구가하였던 것 같다. 청계 김진이 산수지락을 향유하면서 죽어서도 향유하기 위하여 선유정 벽에 사진을 그려 부쳤고 그의 장자 약봉이 강호가도를 구가하며 즐겼던 곳에서 운암이 또 새로운 산수미를 향유하며 백로를 쫓으며 강호의 眞樂을 향유하였다. 여섯 부자가 함께 강호가도를 구가했던 임하구곡의 자연경관은 구곡문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4. 결론

이상으로 ‘임하구곡’의 발견과 고증,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江湖歌道の 시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까지 ‘임하구곡’은 누가, 언제 운영하였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16세기 이후 주희의 『무이도가』에서 비롯된 구곡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논문에서 입증되었다. 조선의 16세기 성리학적 문학관은 구곡을 중심으로 강호가도를 구가하며 자연미를 새롭게 발견해 왔다.

‘임하구곡’은 주희의 산수문학이 무르익던 16세기에 이곳 임하에 정착하기 시작한 의성 김씨 청계 김진에 의해 개척되기 시작하여 그의 장자 약봉 김극일과 그 형제들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9) 『聯芳世稿』 권4, 『雲巖先生逸稿』, 『仙遊亭次伯氏韻』.

특히 약봉 김극일은 퇴계의 제자로서 그 스승만큼 산수를 좋아하고 주희의 산수시를 탐독하며 무이산의 정취를 흠모하였다. 약봉은 주희의 「운곡이십육영」을 흠모하여 「임하이십육영」을 지었으며, 주희의 「무이도가」를 의망하여 「임하구곡」을 경영했던 사실을 발견하였다.

약봉은 퇴계선생을 모시고 임하에서 뱃놀이를 하며 시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었다. 이때 퇴계 선생이 약봉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에서 임하구곡이 직접 거론되고 있었다. 퇴계가 임하에 와서 약봉과 뱃놀이 한 사실도 새롭게 발견되는 강호가도의 흔적이지만 임하구곡을 직접 거론한 사실은 임하구곡의 실체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대산 이상정의 제자였던 유도원은 이 시를 고증하여 약봉 김극일이 경영하였던 임하구곡의 아홉 지명을 자세하게 고증하였다. 유도원의 이 고증은 ‘임하구곡’의 구체적인 경관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임하구곡을 고증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또 약봉은 이연부터 선유정까지가 구곡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임하구곡의 경관을 고증하여 그 실체를 일일이 밝혔다. ‘임하구곡’은 영남의 강호가도를 고증하는 중요한 사실이며 16세기 도학적 문학과 자연미의 발견 등을 고찰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을 차지하는 구곡문화의 새로운 발견이었다.

‘임하구곡’은 율곡의 「고산구곡가」보다도 앞서는 것으로 퇴계의 ‘도산구곡’이나 ‘죽계구곡’과 함께 구곡 경영의 선구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이후 조선의 사림들에게 구곡의 미의식이 퍼져나갔으며 사림들은 구곡의 설정과 자연미를 새롭게 향유하기에 바빴다.

‘임하구곡’은 엄밀히 말하면 청계 김진과 그의 다섯 아들에 의해 경영된 것이었지만 그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임하의 자연미를 향유한 사람은 약봉 김극일 이다. 약봉은 임하구곡의 경관에 대하여 인물기흥의 영탄적 미의식으로 시를 지었으며 수양과 성리학적 학문을 탁물우의하는 시상으로 운곡과 도산을 연상하여 重意로 나아간다.

'임하구곡'은 16세기 강호가도의 현장으로 존재한 것이 분명하고 청계 김진에 이어 약봉 김극일이 운영했던 것도 확실한 사실로 고증되었다. 앞으로 '임하구곡'에 대한 담론의 지평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김성일, 『鶴峯全集』.

柳道源, 『退溪先生文集攷證』.

이상정, 『大山集』.

주 희, 『주자전서』 제20권, 상해고적출판사, 2001.

청계 김진 외, 『聯芳世稿』.

『退溪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민족문화추진회.

퇴계학총서, 『도산전서 1-4권』, 퇴계학연구원, 1988.

『海東雜錄』, 한국문집총간, 민족문화추진회.

경상북도(2012). 『경북의 구곡문화Ⅱ』. 경상북도.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8.

신두환 외, 『국역 안동 예안읍지』, 안동문화원, 2012.

신두환, 『陶山雜詠의 美意識과 雲谷二十六詠의 비교 研究』, 『한문학논집』36, 근역한문학회, 2013.

_____, 『藥峯 金克一의 臨河二十六詠 研究』, 『한국한문학연구』54, 5~44쪽, 2014.

이민홍, 『조선중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3.

조윤제, 『조선시가가사강』, 동광당서점, 1939.

최진원, 『한국고전시가의 형상성』,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6.

투고일 2015. 1. 28 심사시작일 2015. 2. 5 심사완료일 2015. 3. 6

Abstract

A study on 'The Imha-Gugog(臨河九曲)' and
'Gang-ho-Ga-do(江湖歌道)'

Shin, Doo-hwan

This paper is a study on Yag-bong(藥峯) Kim, kg-il(金克一, 1522~1585) of 'The Imha-Gugog(臨河九曲)' and 'Gang-ho-Ga-do(江湖歌道)'. The Imha-Gugog has never been reported in the academic community. This is when I didn't know who was where and how management. This paper will identify it. The name for 'The Imha-Gugog(臨河九曲)' is questioned for the first time in The Collected Works of his mentor Toegae Lee-hwang(退溪 李滉).

He is according to the type of Joo-Hee's 'Un-gok26song(雲谷26詠)' and 'Muyi-Doga(武夷權歌)' whenever meet to a landscape That scenery deserves to have a poem written about it. The Imha-Gugog(臨河九曲) is Joo-Hee(朱熹;1130~1200)'s 'Muyi-Doga(武夷權歌)' and Lee hwang(李滉;1501~1570)'s 'The Dosan-Gugog(陶山九曲)' has been affected. 'Gang-ho-Ga-do(江湖歌道)' is Neo-Confucianism seeking of a nature poems in rivers and lakes, nature, a place of seclusion.

A combination of Confucian scholar and pastoral was moral culture of mind utility to natural beauty find to mountains and waters in the Choseon Dynasty period. 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shown on a 'The Imha-Gugog(臨河九曲)' seek truth to natural beauty find to mountains and waters in The Imha. It was a new discovery of natural beauty. His 'The Imha-Gugog(臨河九曲)' work emphasizes visual images His poetry is characterized by abundant use of aural imagery. he show poem a full of local color 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space sense to shown on a 'The Imha-Gugog(臨河九曲)' seek truth to natural beauty find to mountains and waters in The mountain Imha(臨河).

The interior of The Honest poverty and The artless art and good nature

and The a tough spirit of the classical scholar's was comprised in moral culture of mind utility of The discussion of the Moral philosophy and an Aesthetics. The aesthetics of The Honest poverty and The artless art and good nature and The principle and belief of the classical scholar's is an ideology of arts point of view to "The Imha- a combination of Confucian scholar and pastoral.

Keyword The Choseon Dynasty period, Yag-bong(藥峯) Kim kg-il(金克日1522~1585), 'The Imha-Gugog(臨河九曲)', 'Gang-ho-Ga-do(江湖歌道)', Toegae Lee-hwang(退溪 李滉), Joo-Hee(朱熹;1130~1200), Muye-Doga(武夷權歌).

